

우리의 책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도서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지상캠페인 1

이중환

출판평론가 · 서울신문 논설위원

우리의 책의 문화는 지금 이상한 '망각의 여로' 속에 있다. 책을 읽자는 말도 계속하고 있고, 좋은 책을 고르고 원하자는 운동도 지속되고는 있다. 그러나 과연 책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혹 책을 읽기로 어느날 결심을 하고 누가 권한 어떤 책 한권이라도 사려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책을 곧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는데, 아다시피 실은 그 누구도 책을 구하기가 너무도 어렵다.

이런 현상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도서전달체계가 근본적으로 단순화돼 있었기 때문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를 또 하기는 싫지만 전세계가 평균적으로 도서전달을 하는 방법은 주로 도서관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이다. 도서관이 책을 사고 국민들에게는 이를 무료로 빌려주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 국민들 중 일부가 '나는 빌려보기보다는 내 책으로 사서 내 것으로 읽고 싶다' 할 때, 그때야 개개인이 사들게 된다. 이 역시 제도적 장치가 있다. 하드바운드로 만든 대부분의 책은 도서관이 사고, 대중수요가 있을 만한 책은 별도로 페이퍼 백을 만들어 내게 된다.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책은 또 스튜던트 에디션을 만들게 마련이다. 결국 직접 개개인이 사는 책은 2차적 수요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염가로 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빌어 보는 책'과 '사서 보는 책'의 구분조차 없다. 단지 '사서 보는 책'만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서비스도 없이 알아서 사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서점만이 도서의 유일한 전달체계가 되어 왔다. 그러다가 경제적 조건으로 서점은 점점 비좁아지고 도시 외곽으로 밀리게 되자, 이 축소되는 서점이 전달해 줄 수 있는 양만큼의 책들만 전시되고 판매되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출판사는 또 이러한 전달체계를 바꾸어 보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단순통로를 통해 판매가능한 류의 책들만 내보려는 입장에서 있었다. 이 결과는 지금 보다시피 참담한 것이 되어 있다. 단 하나의 대형서점 '교보문고'가 휴업하자마자 당장 경영의 문제까지 겪게 되는 출판사까지 생겨났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형서점 하나만을 믿고 있는 출판도 출판인가라는 어이없음이라도 느껴야 하는데 그 느낌의 표현마저 찾기는 어렵다. 그리고 여전히 서점들과 마진율논쟁이나 하고 있다. 이것

은 너무 답답한 문화의 몽매함이라는 것을 이제는 좀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좀더 포괄적이며 근본적으로 도서전달체계의 사회적 혁신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혁신은 협소한 의식과 관점 자체를 바꾸는 운동적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단순한 생각들이 하나의 사회제도처럼 너무나 공고히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루하지만 다시 한번 도서유통의 기본골격과 세계적 동향을 일별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도서유통 구조는 고정돼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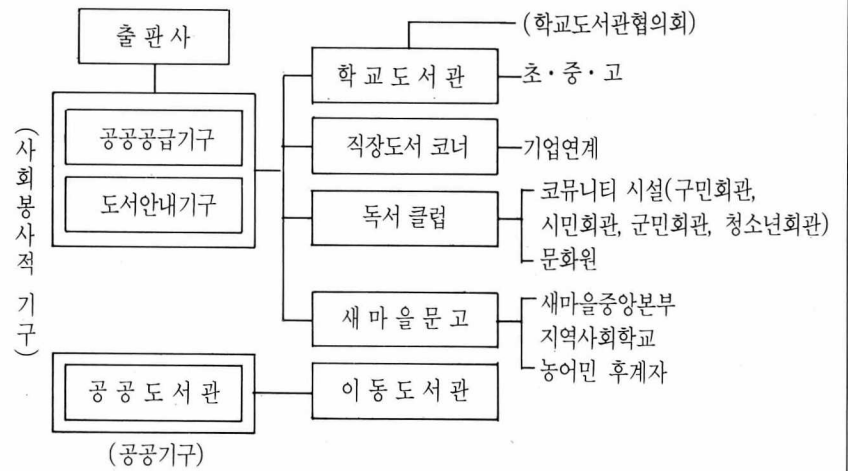
어느 상품에 있어서나 그 유통의 기본골격은 물론 도매점과 소매점을 이어 구매자에게 도달하는 통로이다. 도서에 있어서 특별한 구조인 도서관의 존재 역시 책의 구입은 도매점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기본골격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러한 기본골격까지 선진국적인 형태로 특별히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구조를 정적인 구조라고 했을 때 보다 동적인 구조로 소매부분의 기능을 활성화해가는 노력이 선진국들에서는 눈에 띄게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드럭 스토어'나 '스탠드' 판매라는 형태가 그것인데 책 전문 판매점이라는 '서점'을 벗어나서 독자가 있을 만한 모든 지점에 간이 판매기능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기차역, 버스터미널, 백화점, 슈퍼마켓, 쇼핑센터 등 사람이 모이는 어느 곳에서나 책의 판매대를 볼 수 있는 현상은 일본까지도 포함해서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나 이미 완성돼 있는 보편적 양식이다.

일본의 경우는 '서점' 그 자체가 동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교외점이라는 서점의 형태가 80년대에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시가지나 주택지를 떠나 교외지역이나 교외지역의 주요도로 연변, 그리고 대형 주차장이 있는 시가지 외곽주변에 50평에서 100평에 이르는 서점을 개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결국 유통구조란 유통구조 그 자체가 가진 특별한 구조에 의해서 고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삶의 양식에 따라 어떻게든 보다 편리하게 변화 조직되어가는 유통적인 구조임을 다시 한번 확

전달체계의 기본구상 도식(안)



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도매점과 소매점을 잇는 구조가 아닌 메일 오더(우편판매)라는 직접 판매구조가 또 하나의 큰 판매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우 미국의 잡지들은 최소 30%에서 최대 80%까지를 우편으로 판매한다는 대규모 판매규모가 형성돼 있다.

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통구조도 있다. 통칭 '북 클럽'이라는 제도인데 독자들에 의해 구성된 회원제 클럽이 책의 선정과 책의 안내를 맡고, 이 구조에 의해서 독자가 예약을 한다는 구성이다. 물론 책의 전달은 우편으로 이루어지고 출판자의 판매형식은 직접판매라는 모양이 된다. 북 클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 클럽 자신이 개성적인 성격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고자 하는 책의 분야별, 즉 독자의 취향별로 북 클럽이 세분화된다는 형식이다.

'도매점과 소매점' 형태라는 기본골격의 유통구조 자체가 개성화하는 경향도 볼 수 있다. 일본의 '대학생협'이라는 루트는 150개의 대학이 가입하여 212개 점포를 운영하는(1980년대 중반 기준) 대규모 개성적 유통구조이다. 일본의 경우는 농협 루트도 책의 판매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 도매기능과 소매기능이 분리되기보다는 함께 엉키어 가는 것이 도서 유통구조의 기본적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개성화는 분야별, 집단별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별로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70년 런던에서 열렸던 국제출판연합회의는 이때 이미 전통적인 서점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던 바 있

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출판물 유통에 대한 루트별 분석을 시행했다. 1971년도의 루트별 판매량 분석과 10년 뒤인 1981년도의 같은 분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71년>

- ① 정상 루트(도매-소매점) 72.5%
- ② 할부판매 루트(전집·백과사전) 8.5%
- ③ 교과서 루트(교과서) 5.5%
- ④ 생협(生協) 루트(출판물 전반) 5.5%
- ⑤ 철도 루트(홍제회 잡지 중심) 2.5%
- ⑥ 신문판매점 루트(주간지 중심) 2.5%
- ⑦ 직매 루트 2.0%
- ⑧ 수출 루트 1.5%

<1981년>

- ① 정상 루트 62.8%
- ② 방문판매회사 루트 12.6%
- ③ 교과서 루트 7.5%
- ④ 생협·농협 루트 2.6%
- ⑤ 철도 루트 0.7%
- ⑥ 기타(직매·우편 등) 12.1%

이 비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 서점의 판매비율은 점차 축소되고 있고 보다 밀접한 판매구조인 방문판매 형식이 크게 신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책의 유통구조란 책을 구입하는 독자의 삶의 양식에 따라 유통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다 중요한 기본골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뉴 미디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현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 서점은 결국 모든 책을 다 거리는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분야별, 취향별로

의 특수 전문형식으로서만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중적 도서는 그룹별 직매방향으로 확대될 것이고, 학문적 도서는 도서관 및 뉴 미디어 채널이 연결될 것이므로 어떤 측면에서도 일반적 서점의 장래는 포괄적인 판매형식에서 쇠퇴할 것이다. 이러한 동향에 의해서도 특히 우리와 같이 모든 측면이 부진한 경우에 있어서는, 도서의 전달체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 기존의 틀을 벗어나 보다 가능한 현실구조를 창출해야 할 것이 분명해진다.

우리현실에 맞는 도서전달체계 구상

5년여전 이미 나는 이런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 나름의 상황에 맞는 도서전달체계의 구상을 제안했던 바 있다. 여기에 다시 이를 예시하고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다음과 같다.

표의 구상(안)은 책의 유통구조를 허물지 않으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책이 있어야 할 곳에 직접적으로 전달하느냐를 기본목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현존서점을 통한 간접적 전달체계보다 직판체계가 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출판사 단위나 또는 기타 산개된 거점들에 의해서는 충분한 도서정보의 취득과 도서선택의 기준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보아 이를 담당하는 통합적 기능으로 사회봉사적 공공 공급 기구를 중심거점으로 마련할 것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도식상에 나타난 각 거점항목들을 좀더 구체적 구상으로 발전시킨다면 다음과 같다.

1) 가치 '공공 공급기구'는 판매영업을 하는 기능으로 있을 필요는 없다. 부설기능으로서 '도서 안내기구'(가칭)를 거느리고, ① 도서의 안내(신간 및 기간) ② 대상거점에 맞는 적서의 추천 ③ 구입의 중개 ④ 도서 구입비의 공공적 지원을 위한 조직 및 연계 ⑤ 각급 독서운동의 권장 및 추진을 그 업무로 하는 기능을 갖는다.

2) '도서 안내기구'는 ① 도서별 해제를 포함한 도서안내 전단, 팸플릿, 책자간행 ② 도

서의 공식적 추천 프로그램 운영 ③ 독서 프로그램을 위한 각급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을 맡는다.

3) 학교 도서관의 가장 현실적 과제는 최소 예산내에서도 어떤 도서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또 이를 실질적으로 읽히게 하느냐에 있다. 그러나 바로 이 기능이 현존자력으로서 원활치 않은 것이므로 학교 도서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협의회 같은 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직장도서 코너 및 독서클럽은 앞으로 활성화 조직화를 이루어야 할 기능이다. 현재도 이러한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YMCA를 거점으로 한 '글벗회' 클럽은 이미 자력으로 도서선정 및 도서구입을 위한 소규모 도서전시회를 운영한 사례를 갖고 있다. 특히 앞으로 증가될 커뮤니티 시설들에서의 독서실 운영은 중심적 프로그램의 장이 될 것이다. 서울에서는 각 구별 구민회관이 건립되고 있고 이에 독서실 운영이 확정돼 있다.

5) 새마을 문고 역시 형식상 발전된 도서 수요 및 필요거점이라는 하지만 적합한 도서의 적절한 공급이 수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따라서 도서의 적절한 중앙 공급기능을 창출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일이다.

7) 단, 이 경우 미국의 'Book of the Month Club'과 같은 부대적 혜택기능을 수반케 하는 방안은 필요하다. 즉 기본적인 회원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회원가입자에게 연단위 보너스 북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별 할인제도도 운영케 할 수 있다.

8) 결과적으로 출판사에게는 자력으로 운영하는 출판사별 독서 회원제의 종합화 기능이 되고, 사회적 효과로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양서들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이 된다.

9) 중앙 공공 공급기구의 운영예산은 출판사 및 수요자 회원들의 수익자부담 및 공익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10) 공공도서관의 확장은 물론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건립확대로부터 공공도서관 좌석이용의 정상화와 같은 여러가

지 기능적 활성화는 아직은 그 실현추정이 불가능한 발전과제이다. 따라서 공공 도서관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전단계로 '이동 도서관'의 확대이용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단계적으로도 적절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골격 이외에 서점의 형식을 다양하게 하는 일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슈퍼마켓이나 약국이나 문방구 코너들로의 확산은 이미 선진국들에서 실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체인화 형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꼭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도서 전달체계는 곧 의식의 전달체계

도서전달체계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 단순한 도서의 유통원활화만을 위한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체계라는 하나의 전체체계의 특히 중심부에 놓여 있는 의식의 전달체계이다. 따라서 사회비용을 투입할 응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질적으로 양호한 내용물들을 중심으로 전달케 해야 할 책무도 갖고 있다. 즉, 공공적 기능으로서의 도서전달체계는 국민적으로 '삶의 질'이나 '삶의 기회'를 향상·증대시키며 이로써 개인적 자아실현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세라는 도서관을 사회적 제도로서만이 아니라 '물질적 장비'로서도 규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서관 능력의 정상화 및 도서관 기능의 활성화는 도서전달체계의 유일하며 궁극적인 목적지이다. 단지 도서관 발전에 있어서도 단계적 접근으로서 대학도서관의 잠정적 활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각급 도서관의 현수준에서 비교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서관이 대학 도서관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대서기능에 사회교육적 프로그램을 투여함으로써 공공적 사용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만이어야 할 것이다.

현존수준에서의 공공도서관 역시 사회적 교육적 입장에서의 개혁을 함으로써만 그 존립의

유효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도서관이란 원래 "요구되는 대로 도서를 제공하는 하인이 아니며, 어느 한도내에서 새로운 강력한 힘의 방향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곳"(J. P. Quincy)이다. 그리고 "항상 도덕적 사회발전을 목표로 활동하는 도구로서 후대에 유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곳"(J.P.Quincy)이기도 하다.

이 정신에 의해 18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박람회에서 미국 도서관협회(ALA)는 공공도서관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장서 목록이 곧 'Catalog of ALA Library'이다. 신설 도서관을 위한 기본도서 5천책의 목록이었다. 이러한 기준적 공공목록의 작업이 우리의 공공도서관에서도 이루어져 있어야만 공공도서관이 전달체계의 기반적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평상적인 선정도서 수서의 기능도 미약한 상태이다. 이 맹점 역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구를 해야만 할 것이다.

교육의 구조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 도서의 기본적 수요창출은 교육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계로 정립이 되어야만 온당한 것이다. 교육에서의 책은 지금 단지 수험준비용 단어암기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간행되어 있는 텍스트 그 자체가 교재로 사용되는 구조로 교육형식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도서의 전달체계로서의 확립기반 일 뿐 아니라 교육, 그 자체를 위해서도 가장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교과과정으로부터 도서의 전달이 출발될 수 있다.

여하간 우리는 도서전달체계의 새 단계를 마련해야만 한다. 지금처럼 그대로 앉아지내다가는, 뉴 미디어와 이들이 보여주는 고품위 형상과 빠른 정보들 속에서 출판은 절대적인 의미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

이점에서 '출판저널'이 새해 시작하는 도서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지상캠페인은 우리 문화의 가장 심각한 난제해결에 도전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謹賀新年

출판문화의 발전과
양서출판사업지원을 위하여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2년 새해아침

한국출판금고 이 사장 鄭鎮肅
상임이사 崔學秀

謹賀新年

좋은 책과
빠르고 편리하게 만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92년 새해아침

한국출판협동조합 이 사장 李起雄
전무이사 李珠寧